

월드컵 개막식에 결승전까지... K-컬처 존재감

이제, 개막식서 보첼리와 호츨 BTS, 결승전 하프타임에 공연 "전 세계 젊은 세대 대표 장르"

대한민국 대표팀의 첫 승리로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응원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대회 K-컬처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떠올랐다.

이번 대회는 태평양 건너 미국, 멕시코, 캐나다에서 열리지만 개막식과 주제가 가장, 결승전 하프타임쇼 등 중요한 순간마다 K팝 가수들이 무대를 꾸민다. 대회의 시작과 끝을 K-컬처가 장식하는 셈이다.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주인공 '루미' 역으로 노래해 글로벌 스타로 떠오른 이제(EJAE)는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개막 공연에서 세계적인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와 월드컵 주제가 'DNA'를 열창했다. 이젠은 특히 이 곡의 '또 넘어져도 난 또 다시 일어나'라는 한국어 가사도 노래해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이 부분을 직접 작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그룹 블랙핑크의 리사는 1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또 다른 개막 경기에 출연해 지난날 발표한 월드컵 사운드트랙 '골스'(GOALS)를 불렀다.



이제와 안드레아 보첼리.

연합뉴스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의 피날레는 K팝 간판스타 방탄소년단(BTS)이 장식한다.

방탄소년단은 다음 달 19일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쇼 무대에 헤드라이너(간판출연자)로 출연한다. 이 무대에는 세계적인 팝스타 마돈나, 사키라가 함께 선다.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은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 공식 사운드트랙 '드림머스'(Dreamers)를 부르고 개막식 공연을 펼쳐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에서 K팝 스타들이 잇달아 노래하고 무대에 서는 것 자체가 이전과는 몰라보게 달라진 K-컬처의 위상을 잘 드러낸다고 분석했다.

김현식 문화평론가는 "이번 월드컵의 문화 융합적인 측면에서 K팝이 포함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K팝은 전 세계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장르로, 강력한 코어 팬덤과 소셜미디어 확산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평론가는 이어 "특히 젊은 층과 여성들의 추구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려 관객 유입 효과가 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와 리사, 방탄소년단이 월드컵 공연 가수로 선정된 데 대해 "남녀 대표 그룹은 물론 애니메이션 OST까지 아우르며 종합적인 포용력을 보여준 결과"라며 "전 세계 대중에게 노출되는 이벤트를 계기로 K팝이 더욱 대중화되면서 메인스트림(주류)으로 진입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BTS "여러분이 가장 큰 생일 선물"

부산서 11만 아미와 13주년

"아미(팬덤명) 여러분이 즐겨주시는 모습이 저희에게 가장 큰 생일 선물이예요!"(진)

그들 방탄소년단이 데뷔 13주년 기념일에 부산에서 약 5만5천명의 '아미'들과 뜻깊은 '생일'을 자축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날 오후 월드컵투어 '아리랑'(ARIRANG) 부산 공연에서 "13년을 (멤버들과) 같이 보냈는데, 이 모든 게 다 여러분이 있

어서다. 여러분 덕에 오랜 시간 좋게 잘 버틸 수 있었다"며 "진심으로 아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우리가 해외에 나가 보니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꼈다"면서 "우리 방탄소년단 7명은 한국인이다. 한국에서 공연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 내 나라, 내 땅, 내 도시에서 공연하는 게 가장 즐겁다. 그만큼 여러분도 사랑해 달라"고 말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4월 고양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 월드컵투어 '아리랑' 부산 콘서트.

연합뉴스

'아리랑' 투어의 뜻을 올린 지 약 2개월 만에 다시 국내 무대에 올랐다.

방탄소년단은 전날에 이어 양일간 총 11만명에 달하는 아미를 만났다.

방탄소년단은 모든 일정이 대형 돔 혹은 스타디움으로만 구성된 K팝 사상 최대 규모의 월드컵투어 '아리랑'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오는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유럽 투어의 막을 올린다.

'입원' 최불암 만난 최휘영... "웃음에 안심" 최불암 주연 영화 '최후의 증인' 블루레이 전달도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입원 치료 중인 배우 최불암(86)을 찾아 쾌차를 기원했다.

최 장관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의 '국민 아버지' 최불암 선생님을 찾아 아뵙고 정중히 문안 인사를 드렸다"고 밝혔다. 병문안은 지난 11일 모은영 한국영상자료원장과 함께 간 것으로 확인됐다.

최 장관은 "최불암 선생님께서는 요즘 세상사에 대한 이야기부터 예술, 종교까지 많은 말씀들을 들려주시며 저를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다"며 "특유의 '파하' 웃음으로 반갑게 맞아주셔서 무척 많이 안심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어 "최불암 선생님이 머잖아 퇴원하면 술 한잔하자고도 하셨다. 저는 주저 없이 막걸리를 사달라고 했다"며 추후 병원 밖 만남도 기대했다.

최 장관은 또 영화 '최후의 증인'(1980)의 블루레이를 최불암에게 건넨 사실도 전했다.

최불암이 주연을 맡은 이 영화는 1980년 158분 분량으로 제작됐지만, 김열로 인해 상당 부분 잘려 나간 뒤 감독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졸속 편집돼 개봉됐다. 이후 영상자료원이 2003년 원본을 복원해 154분 버전으로 제작·공개했고, 2017년 블루레이로도 출시했다.

최 장관은 "이 작품으로 선생님께서는 제1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영평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하셨다"며 "모은영 한국영상자료원장께서 이 영화의 블루레이를 전해드리니 매우 반가워하셨다"고 말했다.

최불암은 지난해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KBS 1TV 시사교양 프로그램 '한국인의 밥상'에서 하차하고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13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배우 최불암(86)을 찾아 쾌차를 기원했다.

'해피투게더' 다음 달 부활 유재석·장항준·윤종신 MC

6년 만에 부활하는 KBS 2TV 예능 프로그램 '해피투게더'가 다음 달 10일 오후 8시30분 첫 방송한다.

이번 시즌은 '혼자가 아니어서 좋아'라는 부제와 함께 팀 기반 오디션으로 꾸며진다.

시청자들이 나이, 장르, 자격 제한 없이 오디션에 도전하는 모습을 그린다.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팀을 구성한 출연자들의 사연에도 집중한다. MC는 2003년부터 종영까지 '해

피투게더'를 이끌었던 유재석과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천만 감독이 된 장항준, '슈퍼스타K', '싱어게인' 등 다양한 음악 오디션에서 심사한 윤종신이 맡았다.

'해피투게더'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방송된 KBS 간판 예능 프로그램이다.

'썹가방 토크', '쟁반노래방', '프렌즈', '사우나 토크', '야간매점' 등의 코너로 사랑받았다.

13일 오후 8시30분에는 '해피투게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프로그램에 임하는 세 사람의 소감을 담은 3회차 영상이 공개된다.

| KBS1 | KBS2 | MBC | JIBS/SBS | EBS1 |
|---|---|---|--|---|
|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30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10 TV쇼 진품명품(재) | 4:10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F조 네덜란드-일본 7:10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E조 코스타리카-에콰도르 10:10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F조 스웨덴-튀니지 |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라이브 라이프 사운드 8:50 첫 번째 남자(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뽀뽀보 좋아좋아 11:1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11:45 까망과 베르의 푸드트럭2(재) |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4방블 8:50 종로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11:00 보석야네 건강 수다 | 8:20 한글공서 이야기 9:40 부모의 첫 생교육 10:35 최고의 요리백과 12:10 극한직업 13:25 EBS 평생학교 14:55 나의 두 번째 교과서 15:35 뽀뽀보 뽀로로 17:10 페퍼 피그 18:20 고향민국 |
| 12:00 KBS 뉴스 12 13:00 네트워킹 공동기획 문화스캐치 14:00 KBS 뉴스 14:10 보물섬(재) 14:40 굿 굿이(재) 15:00 현상리뷰(재) 15:30 1989, 두 번째 봄(재) 16:00 시사간담 17:00 KBS 뉴스 5 17:30 탐나는 제주 | 13: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3:40 코미디 대한민국(재) 15:00 KBS 월드컵 뉴스 15:15 2026 FIFA 북중미월드컵 하이라이트 | 12:00 12 MBC 뉴스 12:25 MBC 네트워킹특선 13:25 찾아가는 푸르기교실(재) 13:55 2시 뉴스 외전 15:55 기분 좋은 날(재) 16:55 5시 뉴스와 경제 17:10 베베핀 17:30 첫 번째 남자(재) | 12:00 SBS 12 뉴스 12:45 생동시대 13:00 리얼 검증 트루맨쇼 14:00 뉴스브리핑 15:30 고향이 보인다 16:00 탐광시대 17:00 JIBS 저녁뉴스 17:10 시사이슈 결(재) | 9:00 KCTV 9시 뉴스 9:30 아침뉴스 10:00 로컬여행 오정해보고 11:30 아슈토크 팡 13:00 KCTV 13시 뉴스 13:30 어쩌다 어른 15:30 또래별 16:00 캠프가자 17:20 네트워킹 전국발굴 18:00 공연에 반하다 19:30 슈퍼푸드의 힘 A |
|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우리말 겨우기 20:30 일일연속극 기분 우리 좋은 날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가요무대 22:55 KBS 뉴스라인W 23:35 인생이 영화(재) | 18:35 2TV 생생정보 19:50 일일드라마 붉은 진주 20:30 북중미 월드컵 NOW 22:00 말자소 23:30 스모킹 건(재) | 18:05 오늘N 19:05 첫 번째 남자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22:30 전지적 참견 시점 스페셜 | 18:10 생방송 투데이 19:00 뉴스현장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생활의 달인 22:10 하니 근대 전짜 23:40 나이트라인 | 7:10 생방송 뉴스쇼 9:00 그대 창가에 일렉스입니다 12:00 CBS 뉴스 14:05 이봉규의 어반가요 17:00 시사대거전 제주 17:30 박지현의 뉴스톡 530 18:00 박재홍의 한민승부 20:00 CBS 뉴스 |
| 제주 CBS FM 93.3MHz / 90.9MHz TBN제주교통 FM 105.5MHz / 105.9MHz 7:00 출발! 제주대행진 9:00 스투디오 1055 14:05 TBN 차차차 16:00 TBN 제주대거전 18:05 달리는 라디오 | | | |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064)740-7331 / MBC 064)740-2432 / JIBS 064)740-7800 / KCTV 064)741-7723 / 제주CBS 064)748-7400 / TBN제주교통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15일

김홍상 지단(해)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교원 교수 (010-5233-6136)

36년 시간이 나를 기다려 주지 않으니 주변에서 해법을 찾아보라. 48년 능률이 오르고 이익이 따르니 자신감을 갖고 뛰어들라. 60년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고 타인의 일에 간섭은 금물. 72년 동업 제의 시 정중한 거절도 필요하며 자격준비하여 독립사업 길. 84년 직장, 취업의 소식을 접하고 시원함이 생긴다.

37년 책임이 무겁지만 원활히 해결하고 직감력과 노하우로 부러움을 얻기도 한다. 49년 결혼 또는 집안간 상견례 등으로 바쁘거나 소개 중매가 성사된다. 61년 본인이나 자녀 중 경사가 있고 축하 받을 일이 있다. 73년 하루가 순탄하고 활동이 분주한 날. 85년 명예를 회복하려고 고민하게 된다.

38년 잘 알지 못하면 참견하는 것을 삼가라. 망신수가 보인다. 50년 아랫사람의 말도 나에게 중요하니 경청함이 좋다. 62년 약속에 어긋나고 추진업무에 문제가 발생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74년 유흥 낭비하는 데 지출이 생긴다. 86년 좋은 조건이나 유리함이 있다고 성급함보다는 신중함이 이익이다.

39년 농·수산업은 새벽부터 바쁜 일과 계약일이 있다. 51년 정략 또는 뇌물을 받으면 즉시 구슬수에 오르거나 신변에 이상이 생긴다. 63년 자녀에 대한 경사나 막대한 일이 해소된다. 취업자는 직장승진도 온다. 75년 답답한 휴식과 안정을, 재종전 필요하다. 87년 재물이나 이성문제도 고민을 하게 된다.

40년 직접투자로 사업장을 갖고자 한다. 창업 가능. 52년 인품이 높을수록 언어에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 연행은 그 사람의 품성이다. 64년 오늘 현실이 어려워도 내일을 준비하는 행동이 더 중요하다. 76년 대인관계가 원만하니 이를 적극 활용하라. 88년 학생은 봉사활동 또는 불우이웃을 돕는다.

41년 귀인의 도움으로 건강이 회복되고 일에 능률이 오른다. 53년 일이 증가되고 몸이 분주하다. 유주할 시 절제가 필요하다. 65년 생각이 많거나 안전부정할 수 있으니 침착한 생각이 결단을 바르게 한다. 77년 외출이나 여행 등 활동력이 많아진다. 문안 안부 전화. 89년 로기심과 중중성이 강한 날. 지출이 따른다.

42년 아이디어로 승부하거나 기획력을 인정받는다. 54년 급전이 필요하거나 자금이 필요한 날. 구슬수나 안전사고 주의. 66년 목격하는 것이 있으면 노력해 실력을 인정 받으려 한다. 78년 자기위신을 명쾌하고 정확히 전달하는 것도 옹기다 한다. 90년 의욕이 증가하고 활력이 넘치며 분주하다.

43년 담당하던 일이 풀리거나 거래성사가 있다. 금전이나 매매권이 성사된다. 55년 계획을 세우고 창업을 하고 싶어한다. 신규사업 희망 있다. 67년 한가지 일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 것. 79년 몸이 늦게까지 분주하고 할 일이 많다. 91년 일이 있으면 몸이 사방으로 분주하다.

44년 자영업은 지속적 발전이 있고 직장인은 언행에 신경, 조심해야. 56년 남의 일에 간섭 시 구슬 또는 내가 마무리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68년 예전 같지가 않다. 주변에 도움을 청하면 해소된다. 80년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하는 법. 변동은 자제하고 신중해야. 92년 답답하게 안풀리던 일이 다소 해소된다.

45년 나를 후사시키고 있는 형국이나 조급함을 버리고 여유를 가져라. 57년 문서번하나 하던 일을 변화를 주려고 한다. 69년 갈등과 번민이 많다. 가정에서 금전적 문제. 미혼자는 부모와 마찰이 온다. 81년 가정에서는 마음이 불편하고 밖에선 기쁨이 증가한다. 93년 약속이 중도에 해지되니 일찍 출발하는 것이 좋다.

46년 현재의 일이 힘들다고 변동하는 것보다는 자중함이 좋다. 58년 하는 일에 준비가 필요하다. 주변정리가 우선 시 되어 한다. 70년 애인 또는 친구와의 갈등이 오면 관용이 필요하다. 82년 애정에 희소식이 오기도 하고 선악도 생긴다. 94년 신용 약속 또는 돈과 관계된 일로 시비가 발생하니 조심해야 한다.

47년 찬스가 오면 포착하라. 애정문제가 다가온다. 59년 방해자가 생기니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경계하라. 71년 경쟁자가 많아 나를 비웃게 하는 형국으로 노력한 만큼 결과가 없다. 83년 미혼자는 소개, 중매가 생기고 기혼자는 집안일에 분주하다. 95년 작은 이익이 있고 좋은 소식도 들려온다.